

『현대영어문학』 제33권 2호
(2015) 봄 147-175

초·중학교 ‘언어하기’ 활동을 통한 영어 학습동기 증진 및 영어 자아 형성 연구: 혼합 연구법*

김 태 영
(중앙대학교)

Kim, Tae-Young. “Enhancing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Creating English Self Through Languageing Activities in Korea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 Mixed-Methods Approach.” *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 Literature* 33.2 (2015): 147-175. This paper focuses on the effect of motivational languageing activities (MLAs) on students’ L2 learning motivation. In the fall 2011 semester, a set of L2 motivation questionnaires was administered to 2,625 Korean students. The result showed that Korean stude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 decreased whereas their demotivation increased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anner. In the spring 2012 semester, 837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action research, and they belonged to one of the following four groups: 1) written languageing (English-learning diary) group, 2) written languageing (opinion writing after watching exemplary cases) group, 3) verbal languageing (group discussion after watching exemplary cases) group, and 4) control group. By using questionnaires, students’ changes including their L2 selves were measured twice, which was a pre- and post-test design. The results indicated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written languageing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 in their ideal L2 self, attitudes toward learning English, and integrative orient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LAs are effective for maintaining and enhancing students’ L2 learning motivation. (Chung-Ang University)

Key Words: motivational languageing activity, L2 motivational self system, questionnaire, written languageing, verbal languageing

I. 서론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332-2011-1-B00483).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의 세심한 심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어 학습 동기를 다룬 최근의 선행연구(김성식 1999; Kim 2011; Kim & Seo 2012)에 의하면 한국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동기는 공교육이 시작되는 3학년에서 6학년으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낮아지는 영어 학습 동기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틀로는 첫째, Dörnyei(2005, 2009)의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L2 motivational self-system)를 활용한다. 이 개념의 핵심에는 영어를 포함한 제2언어 학습자는 궁극적으로 그 언어를 배운 이후의 더 나은 미래, 더 향상된 자아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머릿속에 상상하게 되며, 이러한 마음속 이미지, 즉 심상(心象)이 더 구체적이고 생생할수록 영어 학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이것이 학습동기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Dörnyei는 이 구체적인 마음속 이미지를 통해 형성하게 되는 자신의 긍정적 미래상을 이상적 제2언어 자아(ideal L2 self)라고 하며, 반면 다른 주변 사람들(예를 들어,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의 요구에 의해 형성하게 되고, 의무감에 의해 강제된 미래의 모습을 필연적 제2언어 자아(ought-to L2 self)라고 구분한다. 이러한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는 한국의 영어교실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영어 교사 및 교수들이 만나는 상당수의 학생들은 영어공부를 왜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어떠한 미래를 꿈꾸는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영어 교사와 교수들은 영어를 공부하면서 학습자들이 미래의 긍정적 모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였을 때의 불안한 미래를 염려하면서 영어 학습을 하거나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한 채 “당연히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결국 다수의 한국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 동기가 없거나 의무감이 주가 된 필연적 제2언어 자아에 의해서 또는 막연한 동인(motive)만을 느끼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영어 학습 탈동기화(demotivation) 연구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Kim & Kim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켜 동기 유발된 영어 학습자를 만들 수 있는 교실 활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이 연구는 한국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의 영어 자아 형성과 학습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 교실 활동 방안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초·중학교 학

생들의 이상적 자아 및 필연적 자아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학교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바뀔 때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량적 설문지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 연구는 분석된 영어 학습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탐색을 위해 정성적 방법으로 분류되는 교실 현장 사례연구(case study)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이론적 틀은 Swain(2006a, 2006b, 2010)의 최근 개념인 '언어하기(languaging)'이다. 언어 출력 가설(output hypothesis)로 영어교육계에 널리 알려진 Swain(1985, 1995, 2005)은 Vygotsky의 사회문화이론에 입각해 언어하기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cf. Vygotsky 1978, 1987). 언어하기란 학습자들에게 현 상태보다 인지적인 도전이 될 수 있는 과제를 모국어 혹은 제2언어를 사용해 해결해 나가면서 이들의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Swain의 언어하기 개념을 인지적 측면에서 정서적 측면으로 확대 적용하여, 초·중학교 영어 수업에서 다양한 언어하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동시에, 현장 적용을 통한 언어하기 활동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틀로서 Dörnyei(2005, 2009)가 제안하는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와 Swain(2006a, 2006b, 2010)의 언어하기를 채택해 한국 영어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교실 활동을 연구하였다. 기존의 제2언어 학습동기 연구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교실활동과는 다소 유리된 심리측정학적인 학술적 연구에만 국한되었다는 반성을 고려한다면(Dörnyei 2010), 본 연구는 학술적 발견들을 학습 환경에 적용하여 실제적인 학습동기의 향상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선행연구와는 구분되는 실천적 성격의 연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목표로 한 세부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다.

1) 공교육이 시작되는 초등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7개 학년의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 중 학생들의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2)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영어 학습동기를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는 교실 언어하기 활동 중 한국 영어 교실에 가장 효과적인 활동은 무엇인가?

II. 선행 연구

2.1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와 탈동기화 연구

제2언어 학습 동기 관련 선행연구 중 상당수는 캐나다 출신 학자인 Gardner와 그의 동료들에 의한 연구이다(Gardner 1985, 1988, 2001, 2006). 그의 제2언어 학습동기 이론은 사회교육모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통합성과 도구성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은 영어교육계에 잘 알려져 있다(Brown 2007). 한국의 영어 학습 동기 연구 역시 Gardner의 접근방식과 유사한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험자들에게 설문지를 활용한 정량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이다은 & 김태영 2013; 이효웅 1996; Kang 2000, 2010; Kim 2010). 이들 선행 연구는 대체로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은 도구적 동기가 강하며, 미국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들이 영어 학습 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위의 선행연구들이 이론적 틀의 원형을 제공하는 Gardner의 사회교육 모형은 1959년에 최초로 개발되어(Gardner & Lambert 1959), 국가 간, 민족 간, 지역 간 교류가 급증한 21세기의 국제정세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Dörnyei 2005, 2009; Dörnyei & Ushioda 2009, 2011). Dörnyei(2005, 2009)는 Gardner가 제시했던 통합적 성향은 빠르게 증가하는 국제교류, 국제이민, 다문화 간의 교류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에 통합되고 싶고 그 “국가 구성원들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열망”(Gardner & Lambert 1959: 271)을 지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운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한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는 해당 국가에 가거나 체류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닌, 장래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Kim 2010), 성인들이 영어를 학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해당 국가에 장기간 체류한다기보다는 직업상의 현실적 필요성(예를 들어, 이메일 교환, 상품 판매)에 기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듯 체류를 수반하지 않는 국제협력 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목표언어 구사 집단에의 동화를 설정하는 통합적 성향은 국제공용어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현재의 영어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현실적 비판에 기반하여 Dörnyei(2005, 2009)는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ideal L2 self), 필연적 제2언어 자아(ought-to L2 self), 제2언어 학습 경험이라는 세 가지의 하위 개념이 존재한다. 이상적 제2언어 자아는 학생이 영어 학습을 통해 미래의 바람직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UN과 같은 국제기구나 다국적 기업에 취업해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미래에 되고 싶은 이상적 자아를 꿈꾸며 영어 학습을 하게 된다. 반면, 필연적 제2언어 자아는 주변 사람들의 강요, 혹은 영어 학습의 실패에 따른 부정적 미래의 모습(예를 들어, 대학 진학의 실패 혹은 취업 기회의 부재)에 대한 염려로 인해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Dörnyei 2009).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 연구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필연적 제2언어 자아보다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하지만 영어 능숙도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필연적 제2언어 자아가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유사한 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최덕인 & 김태영 2013),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이상적 제2언어 자아는 낮은 반면, 필연적 제2언어 자아는 높게 나타난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 하다(Kim & Kim 2011).

Dörnyei(2009)는 과거 Gardner(1985, 2001)가 언급하는 사회교육모형 중 통합성(integrativeness)은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의 이상적 제2언어 자아의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도구성(instrumentality)은 이상적 제2언어 자아 혹은 필연적 제2언어 자아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Dörnyei가 주장하는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는 영어 학습자 개개인이 어떠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며, 하나가 다른 것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Kim 2009).

다수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위의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가 학술적으로 Gardner의 사회교육모형보다 더 타당성 있는 모형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예를 들어, Dörnyei, Csizér, & Németh 2006; Kim & Kim 2012; Lamb 2007) 영어 학습 동기 이론은 현재까지 영어교육이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학교 교실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학술적인 심리적 구인들을 교실친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Dörnyei(2001)는 교실 영어 수업 전, 중, 후에 걸쳐서 교사 혹은 교수가 교실 환경, 학생의 교우 관계, 학습 스타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학습 동기 향상 전략을 개념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Cheng과 Dörnyei(2007), Guilloteaux와 Dörnyei(2008) 등 일부 논문을 제외하면 영어 학습 동기를 향상, 유지시킬 수 있는 교실친화적 학습 동기 연구는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 있는 영어 학습 동기의 다른 한 축은 영어 학습 탈동기(demotivation)이다. 탈동기화는 제2언어 학습 동기 분야에서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개념으로, 학습 초반에 동기를 지니고 있었던 제2언어 학습자가 특정한 이유로 학습에 대한 노력이나 관심을 잃는다면 탈동기화된 학습자라고 간주될 수 있다(Dörnyei & Ushioda 2011). Kim(2011)은 우리나라 초등학생 6,301명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동기의 하위 구인인 통합적 동기, 도구적 동기,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모두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탈동기화 경향은 초등학생 뿐 아니라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데,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동기는 고등학교에서 다소 높아지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중학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 집단 역시 초등학생 집단의 비교적 높은 영어 학습 동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Kim 2012).

2.2 언어하기(Languageing) 활동: 개념과 확장

위에서 요약한 최근의 영어 학습동기 이론과 교실활동 간의 괴리를 타개하기 위한 현장친화적인 개념의 이론적 핵심 개념 축을 이 연구에서는 Swain(2006a, 2006b, 2010)의 언어하기(languageing)로 삼고자 한다. 수동적인 태도를 지닌 학생이 아닌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동기가 유발된 학생을 키우는 것이 교육이 지향하는 바라면, 교사는 적은 시간을 투여하여도 최대의 학습 동기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

서 발견되는 탈동기화된 영어 학습자들을 재동기화(remotivation)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의의가 있다(Kikuchi 2013; Kim & Kim 2013).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의 의미를 반추해 보고, 그것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언어표현활동(verbalization), 즉 '언어하기(languaging)'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사회문화이론에서는 인간의 언어는 사고를 정교화시키는 초인지적 기능(metacognitive function)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영어교육학에서는 언어 출력가설(output hypothesis)(Swain 2000, 2005), 심리학에서는 단순측정효과(mere-measurement effect)(Morwitz, Johnson, & Schmittlein 1993) 및 언어적 음영화(verbal overshadowing)(Ericsson 2002; Ericsson & Simon 1998)라는 개념으로 정교화되고 있다.

한국의 영어교육학계에 비교적 생소한 개념인 언어하기는 Swain(2006a, 2006b, 2010, cf. Swain, Lapkin, Knouzi, Suzuki, & Brooks 2009)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Swain과 그 동료들(2009: 5)에 의하면 언어하기란 단순한 언어표현활동이 아니며, 모든 종류의 언어표현활동이 언어하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언어하기를 "복잡한 문제나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매개하기 위한 언어표현의 한 형태(a form of verbalization used to mediate the solution(s) to complex problems and tasks)"로 정의한다. 또한 언어하기는 언어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가고 지식과 경험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개념화되고 있다(Swain 2006a: 95).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말이나 신변잡기적 대화는 인지적 자극을 수반해 과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언어하기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음성 혹은 문자언어를 통해 인지적 자극을 주어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이 언어하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Swain과 그 동료들(2009)은 언어하기 활동을 제2언어 학습과 관련된 인지적인 과제 해결(예를 들어, 영어 혹은 프랑스어의 문법 항목 학습)에 적용시키는 일련의 시도를 하여 왔다.

본 연구는 언어하기 개념을 기존의 인지적 활동 뿐 아니라 영어 학습 동기 유발이라는 정서적 측면으로 확장시키려는 시도이다. 정서적 측면에의 언어하기 활동은 결국 영어를 학습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자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어 학습자가 언어하기 활동 중,

혹은 활동 후, 자신이 영어를 통해 바라는 바가 무엇이며, 영어를 사용하는 미래의 자기 모습과 자신의 현재 모습과는 어떠한 괴리가 있으며, 그 간극은 좁혀질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활동의 핵심이다. Swain의 언어하기 활동을 영어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전환하였을 때에 우리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왜 공부하는지, 또 영어를 잘 하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영어 학습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의 핵심 요소인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가 한국 초·중학생들에게 어떻게 구현되고, 이 두 요소간의 관계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첫 번째 연구 문제로 하였다. 이후, Swain(2006a, 2006b, 2010)의 언어하기 활동을 수행하여 학생들의 영어 학습동기가 유지 혹은 강화되는지를 연구하며, 가장 효율적인 언어하기 활동은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을 두 번째 연구 문제로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첫째 연구 문제에 해당되는 정량적 설문지(survey) 방식과, 둘째 연구 문제에 해당되는 사례연구(case study)와 현장연구(action research) 방식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정량적 방식인 설문지법을 먼저 시행한 후, 정성적 방식으로 분류되는 교실 현장연구가 수반된 사례연구를 후속하고 있으므로, 설명적 혼합연구(explanatory mixed-methods) 디자인을 취하고 있다(Ivankova & Creswell 2009).

3.1 정량적 설문지 연구 단계

3.1.1 연구 참여자

첫째 연구 문제를 위한 정량적 설문지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국 14개 학교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4곳)에서 추출된 2,625명의 초·중학생들로, 초등학교생은 1,466명(55.8%), 중학생은 1,159명(44.2%)이었다. 이들 중 1,380명(52.6%)은 여학생이었으며, 1,192명(45.4%)은 남학생이었고, 53명(2%)은 성별을 밝히지 않았다. <표 1>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설문 참여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구분을 보여준다.

<표 1> 학년에 따른 참여자 정보

학교 구분	학년	인원수	퍼센트(%)
초등학교	3	343	13.1
	4	409	15.6
	5	420	16.0
	6	294	11.2
중학교	7	417	15.9
	8	452	17.2
	9	290	11.0
합계		2,625	100.0

3.1.2 설문 자료 수집 방법

정량적 설문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 설문 조사는 2011년 6월에 초등학교생 26명, 중학생 43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에 포함된 영어 학습 동기 요인은 Taguchi, Magid와 Papi(2009)가 일본, 중국, 이란에서 시행한 영어 학습 동기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되었다. 포함된 요인은 1) 이상적 제2언어 자아, 2) 필연적 제2언어 자아, 3) 도구적 동기(장려), 4) 도구적 동기(예방), 5) 가족의 영향, 6) 동기화된 행동, 7)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8) 통합적 동기, 9) 영어 사용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10) 문화적 관심이다. 동기 요인 외에도 Kim(2012)에 의해 개발된 탈동기화를 측정하는 문항들 역시 포함되었다.

예비실험에 이미 참여한 피험자들은 본 실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예비실험 결과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확인하여 동일한 구인에 포함되면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저해시키는 문항들을 검토·삭제한 후 본 실험을 위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설문 문항은 Kim[2012] 참조). 완성된 본 실험 설문지의 각 구인별 문항 수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 총 8문항($\alpha=.936$), 필연적 제2언어 자아 총 8문항($\alpha=.846$), 도구적 동기(장려) 7문항($\alpha=.855$), 도구적 동기(예방) 7문항(α

=.877), 가족의 영향 8문항($\alpha=.851$), 동기화된 행동 5문항($\alpha=.894$),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5문항($\alpha=.886$), 통합적 동기 3문항($\alpha=.715$), 영어 사용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3문항($\alpha=.844$), 문화적 관심 4문항($\alpha=.649$), 탈동기화 10문항($\alpha=.864$)이다. 모든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설문에는 학습자 배경 정보 문항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자신의 영어 성적 점수를 직접 기입하도록 요청하였다. 본 실험은 2011년 7월부터 11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설문 조사의 실시는 연구자 혹은 각 학교의 교사가 담당하였다. 초등학교생들의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이들의 이해를 점검하고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문항을 다시 설명해 주어 설문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본 실험 참여 학생들은 설문 조사의 목적과 수행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3.1.3 설문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한 정량적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의 중점은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의 중요 구인인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를 중심으로 영어 학습 동기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발현되고 있으며, 이 양상이 각 학년별, 초·중학교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피는 것이었다. 변화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대응표본 t검증법 및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작성한 본인의 영어 성적 점수와의 관련성을 살피기 위해 학습동기 각 요소를 독립변인으로, 종속변인을 영어 성적으로 처리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3.2 현장연구 단계

두 번째 연구 문제는 한국 초·중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지 및 강화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교실친화적 언어하기 활동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언어하기 활동은 언어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고양시킨다는 Vygotsky 사회문화이론(sociocultural theory)에 기반하고 있으며(Vygotsky 1978, 1987), 영어 학습자가 활발한 언어하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 자신의 학습

동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학습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언어하기 적용 방식은 학교 정규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배우는 의미와 영어를 배운 후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떠올려 보게 하는 활동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이상적 제 2언어 자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학습 동기의 전반적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는 교실친화적 현장연구(action research)의 성격을 띠고 있다.

3.2.1 언어하기 현장연구 준비 단계

준비 단계에서는 실제 교실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적용력이 높은 언어하기 활동들을 구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직 초등학교 및 중학교 영어 교사 각 1인을 모집하여 1-2월 2개월간 교과협의회를 진행하여 기존 초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수업 시간에 가급적 적은 시간을 투여해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의 의미를 반추할 수 있게 할 다양한 언어하기 활동을 구성하였다. 방과후 수업이나 기타 비정규 영어 수업이 아닌 정규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1)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활동이 가능할 것, 2) 학생 및 영어 교사에게 과도한 수업 외적 부담이 되지 않을 것, 3) 학생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는 세 가지 기준 하에 언어하기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안된 세 종류의 언어하기 활동과 통제집단 활동의 예는 다음 페이지의 <표 2>와 같다.

<표 2> 언어하기 활동(languaging activity)의 분류

	통제반 (n=222)	실험반		
		영어 학습 일기 (n=205)	영어 모범 사례 읽고 의견 적기 (n=204)	영어 모범 사례 보고 조별 토론 (n=206)
활동의 성격	영어 모범 사례에 대한 핸드아웃을 나누어 주고 수업 시간에 교사의 통제 하에 일정한 시간을 주어 각자 읽	지난 한 주간 진행된 영어 수업에 대해 학습 일기를 각자 작성해 보는 활동	영어 모범 사례에 대한 짧은 비디오 자료를 읽고 분석해서 자신의 느낀 점을 각자 작성해 보는 활	영어 모범 사례에 대한 짧은 비디오 자료를 보고 조별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활동

	어 보는 활동	동		
교사의 역할	자료 나누어주고 읽도록 하기	학습일기 체크 및 피드백	과제 체크 및 피드백	학생들간 활발한 토론 유도하기
학생의 인지적 부담	낮음	중상	높음	낮음
교사의 시간 투여	낮음	중간(체크, 피드백)	낮음	낮음
학생의 시간 투여	낮음	중간	중간	낮음
언어 유형	문자언어	문자언어	문자언어	음성언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없음	없음	있음	있음

3.2.2 언어하기 현장연구 실행 단계

준비 단계를 거친 통제반과 세 종류의 언어하기 활동을 하는 실험반 디자인을 2012년 1학기 3월에서 7월 한 학기에 걸쳐 초등학교 1곳 및 중학교 2곳에서 실시하였고, 총 837명이 참여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5학년 420명을 대상으로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중학교 두 곳에서는 417명의 1학년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였다. 언어하기 실험에 참여한 교사는 초등학교 1인, 중학교 2인의 영어교사이며, 각 교사는 4개 학급(실험학급 3학급, 통제학급 1학급)에 적용하여, 전체 총 12학급에 언어하기 활동이 적용되었다. 교실 연구의 특성상 무선 할당 방식 대신 원상태 그룹 디자인(intact group design)이 활용되었다.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학급간 학생들의 초기 영어 학습 동기 및 영어 능숙도는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이 언어하기 활동 전후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및 제2언어 자아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므로, 각 교사는 같은 학년의 4개 학급에 상이한 언어하기 활동을 한 학기간 적용시켜 학생들의 변화를 살폈다.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3월 둘째 주 혹은 셋째 주부터 2주 간격으로 언어하기 활동을 적용시켰다. 한 학기가 20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중간, 기말고사 및 준비 기간 각 2주씩을 제외하고, 1학기 초 1주 및 학기말 1주를 제외하여, 총 14주 동안 언어하기 활동이 격주 7회 시행되었다.

모든 활동은 수업 진도를 시작하기 전 혹은 후, 10분-15분간을 할애하여 진행되었다. 언어하기 활동이 수업 전 혹은 후에 융통성 있게 시행된 것은 매 차시의 수업 진도를 고려하여 교사 판단에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상이하였기 때문이다. 통제 집단의 경우, 교사가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물에 대한 정보(영어 모범 사례)를 담은 핸드아웃을 나누어 주고 차분히 읽도록 하는 활동이었다. 통제 집단의 학생들은 별도의 토론이나 글을 작성하는 활동, 즉 언어하기 활동 없이 영어 모범 사례 내용을 개별적으로 읽었다.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교사의 지도가 수반되었다. 통제반을 제외한 실험반에는 학생들에게 해당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침서를 구성하여 배포하였다. 이 지침서는 한국인으로서 훌륭하게 영어를 습득한 7인의 사례를 격주로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되었다. 영어 학습 일기를 진행하는 반 학생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영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자신의 학습 태도를 반성해볼 수 있도록 고안된 활동 지침서의 질문들에 답하며 학습일기를 작성하였다. 질문들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수업 참여, 집중, 학습 과정 등을 떠올리며 자신의 생각을 일기 형식으로 적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일기 글로 작성하는 것이 영어 학습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문자 언어하기(written languaging) 활동으로 고안된 것이다. 영어 모범 사례 읽고 의견 적기 반에서는 먼저 해당 영어 모범 사례의 인물이 영어를 하는 모습을 담은 짧은 비디오 자료를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시청한 후, 개별적으로 영어 모범 사례를 읽고 후속 질문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글로 표현하는 활동이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물의 영어 학습 방법에 주로 초점을 맞춘 영어 모범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 모습과 영어와의 관련성도 생각해보도록 하여 이상적 제2언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반기문 현 UN 사무총장이 연설하는 모습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을 교사의 간략한 설명과 함께 약 5분간 시청하였다. 이후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였는지에 대한 1-2 페이지 정도의 간략한 소개 글을 학생들이 읽는 시간을 가졌다. 역시 분량이 매우 짧으므로 5분 미만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영어 모범 사례 보고 조별 토론하기 반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글을 작성해야 하는 인지적 부담을 덜고 음성언어로의 대체

를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영어 모범 사례 읽고 의견 적기 반과 동일한 짧은 비디오 자료를 시청한 후, 교사 감독 하에 3-4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조원들이 토론을 하는 것으로, 토론을 위한 질문은 읽고 의견 적기 반에서와 비슷한 사항들을 위주로 진행되었지만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활동은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3.2.3 언어하기 현장연구 성찰 단계

언어하기 활동을 수행한 현장연구 결과를 성찰하기 위해서 정량적 접근법이 사용되었다. 현장연구의 3개 실험 집단과 1개 통제 집단에 속한 초·중학생들의 학습 동기에 유의미한 증감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1차 정량적 설문지 연구 단계에서 이미 시행한 정량적 영어 학습 동기 설문지를 1학기 초(3월 초)와 학기 말(7월 말)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측정된 자료로 활동 전과 후 학생들의 동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법을 사용하여 설문에 포함된 동기 요인들의 변화를 살폈다.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2곳을 각각 분석하고, 또한 세 학교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하기 활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정량적 설문지 연구 결과

정량적 설문지 연구 결과는 한국 초·중학교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바뀔 때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며, 또한 동기 요인들이 학생들의 영어 학습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핀다.

4.1.1 영어 학습 동기의 학년별, 학교급별 변화

<표 3>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영어 학습 동기 관련 10개

하위 요인들(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 도구적 동기(장려), 도구적 동기(예방), 가족의 영향, 동기화된 행동,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통합적 동기, 영어 사용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문화적 관심)의 학년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ANOVA 분석 결과, 이상적 제2언어 자아는 학년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필연적 제2언어 자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의 학년별 변화를 살펴보면, 상급 학년에서 평균이 향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에 속하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 외의 다른 동기 요인들도 모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비교하여 볼 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탈동기화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유의미한 증가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영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동기 요인인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의 변화를 더욱 분명히 살피기 위해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의 학년별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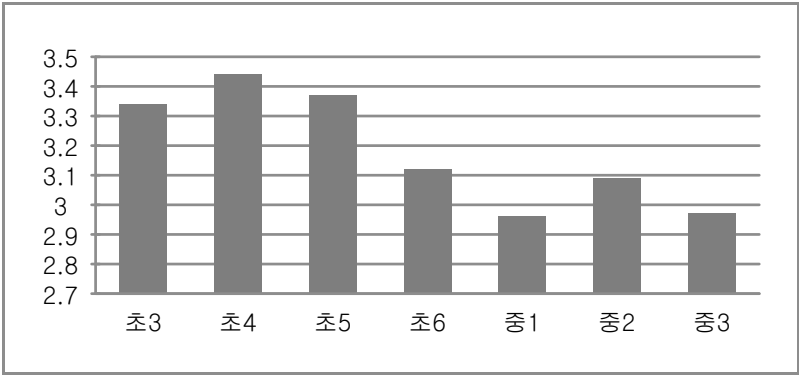
<표 3>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의 학년별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유의 확률	
	초등학교			중학교				
	3	4	5	6	1	2		3
이상적 제2언어 자아	3.34 (.96)	3.44 (1.00)	3.37 (1.00)	3.12 (.96)	2.96 (.99)	3.09 (.93)	2.97 (.96)	.000**
필연적 제2언어 자아	2.84 (.83)	2.81 (.86)	2.76 (.87)	2.90 (.84)	2.76 (.77)	2.80 (.75)	2.69 (.75)	.051
도구적 동기(장려)	3.26 (.77)	3.39 (.82)	3.32 (.81)	3.30 (.90)	3.17 (.80)	3.25 (.73)	3.14 (.79)	.000**
도구적 동기(예방)	3.20 (.89)	3.17 (.89)	3.10 (.91)	3.17 (.88)	3.10 (.83)	3.16 (.80)	2.99 (.82)	.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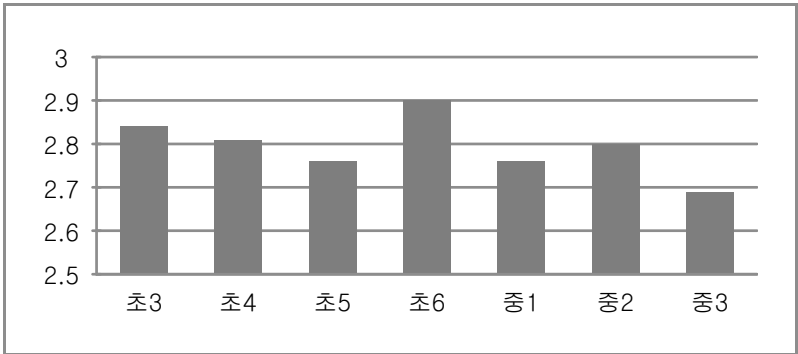
가족의 영향	2.82 (.77)	2.91 (.82)	2.83 (.79)	2.90 (.81)	2.79 (.77)	2.85 (.70)	2.71 (.69)	.019*
동기화된 행동	3.41 (.94)	3.37 (.97)	3.26 (1.01)	3.02 (1.00)	2.78 (.95)	2.97 (.95)	2.81 (.90)	.000**
영어학습에 대한 태도	3.30 (1.07)	3.40 (1.09)	3.24 (1.06)	2.66 (.99)	2.59 (.94)	2.83 (.86)	2.73 (.94)	.000**
통합적 동기	3.25 (1.05)	3.38 (1.07)	3.28 (1.06)	3.03 (1.02)	2.75 (1.02)	3.03 (.94)	2.96 (.94)	.000**
영어 사용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3.08 (1.16)	3.29 (1.09)	3.18 (1.09)	2.92 (1.06)	2.74 (1.5)	3.09 (.95)	3.05 (.99)	.000**
문화적 관심	2.74 (1.00)	2.98 (1.00)	2.93 (1.00)	2.78 (.98)	2.67 (1.00)	2.94 (.90)	2.90 (.91)	.000**
탈동기화	2.33 (.85)	2.47 (.87)	2.44 (.87)	2.67 (.83)	2.74 (.78)	2.87 (.75)	2.85 (.68)	.000**

Note. ** p=.000, * p≤.05

<그림 1>에서 드러나듯이, 이상적 제2언어 자아는 대체적인 감소 경향을 보인다. 중학교 2학년의 이상적 제2언어 자아의 평균이 중학교 학년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초등학교 학년 중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6학년 학생들보다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공교육에서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은 비교적 높은 이상적 제2언어 자아를 지니고 있지만,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영어 학습 동기가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즉, 초등학교 5학년의 평균인 3.37에서 중학교 1학년의 2.96으로 급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을 그리며 그 이상적인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학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초등학교 5학년 부터 영어 교과서의 내용이 많아지고, 수업 시수도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증가되는 등 영어를 학생들의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주요 과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이상적 제2언어 자아의 학년별 변화



<그림 2> 필연적 제2언어 자아의 학년별 변화

<그림 2>에서 나타난 필연적 제2언어 자아의 학년별 변화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감소하던 패턴이 6학년에서는 증가를 보이지만, 중학교 1학년에 급격하게 감소하여 중학교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의 필연적 제2언어 자아는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낮았다. 흥미로운 것은 <그림 1>과는 대조적으로 <그림 2>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의 필연적 제2언어 자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영어를 학습해서 미래에 자신이 꿈꾸는 유능한 자아를 학생들이 생각하기 보다는 영어를 배워서 이루어야 하는 상급 학교에의 진학, 영어를 잘 못했을 때의 불이익 등 의무감에 의한 학생의 심리적 압

박을 보여주는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은 다른 초등학생들에 비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해서 더 열심히 영어 학습을 해야 하겠다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반영된 결과가 위의 <표 3>과 <그림 2>인 것이다.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의 학년별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중1에 비해 중2에서는 평균값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여 영어 수업 시수가 급증하고 음성언어에서 문자언어 위주의 영어 수업으로 변화했으므로 중1학생들은 초등학생 시기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학생들의 저조한 평균값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중2의 경우에는 이미 적응되었기 때문에 다소 평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이러한 동기의 감소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표 4>에서와 같이 초·중학생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표 4>에서 나타나듯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는 도구적 동기(예방)와 문화적 관심을 제외한 동기 요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 도구적 동기(장려), 가족의 영향, 동기화된 행동,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통합적 동기, 영어 사용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에서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영어 학습 동기를 나타냈다. 또한 중학생의 탈동기화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의 이상적 제2언어 자아의 경우, 필연적 제2언어 자아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보이고 유의확률 또한 .000으로, 이 요인으로 드러나는 초등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는 중학교에서 매우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영어 학습 동기 하위 구인들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비교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유효크기 (Cohen's d)
이상적 제2언어 자아	초등	3.33	.99	8.342**	.000**	0.39
	중	3.01	.96			
필연적 제2언어 자아	초등	2.82	.85	1.957*	.050*	0.08
	중	2.76	.76			

도구적 동기 (장려)	초등	3.32	.82	3.973**	.000**	0.15
	중	3.20	.77			
도구적 동기 (예방)	초등	3.16	.90	1.839	.066	0.07
	중	3.10	.82			
가족의 영향	초등	2.87	.80	2.277*	.023*	0.09
	중	2.80	.72			
동기화된 행동	초등	3.28	.99	10.883**	.000**	0.01
	중	2.86	.94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초등	3.18	1.09	11.477**	.000**	0.46
	중	2.72	.92			
통합적 동기	초등	3.25	1.06	8.437**	.000**	1.04
	중	2.91	.98			
영어 사용 지역 사회에 대한 태도	초등	3.14	1.11	4.308**	.000**	0.18
	중	2.95	1.01			
문화적 관심	초등	2.87	1.00	.972	.331	0.04
	중	2.83	.95			
탈동기화	초등	2.47	.86	-10.899**	.000**	-0.43
	중	2.82	.75			

Note. ** p=.000, * p<.05; 초등학생=1499명, 중학생=1159명

4.1.2 영어 학습 동기와 성취도

본 연구는 한국 초·중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의 각 하위 구인이 영어 학습 성취도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또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표 5>와 같이 동기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영어 성적을 종속변인으로 처리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5>에서 확인되듯이, 10개의 동기 요인 중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독립변인은 이상적 제2언어 자아, 필연적 제2언어 자아, 통합적 동기, 도구적 동기(예방)이었다. 이러한 4개 동기 요인들은 학생들의 영어 학습 성취도 중 총 15.1%를 설명하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각각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필연적 제2언어 자아, 통합적 동기, 도구적 동기(예방)의 설명력은 각각 1%, 1.1%, 0.2%였고, 가장 많은 설명력을 지닌 것은 이상적 제2언어 자아로, 영어 학습 성취도의 13%를 설명하였다. 이는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

계 중 특히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한국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영어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Kim 2012; Kim & Kim 2012). 그런데, <표 3>과 <표 4>에서는 학년이 지남에 따라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필연적 제2언어 자아보다 더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표 5>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의 영어 학습 성취도에 대한 영향

	R	R제곱	수정된 R제곱	R제곱 변화량	t값 (유의확률)	다중공선성	
						공차한계	VIF
이상적 제2언어 자아	.360	.130	.130	.130	12.382** (.000)	.519	1.928
필연적 제2언어 자아	.374	.140	.139	.010	-5.321** (.000)	.336	2.979
통합적 동기	.388	.151	.149	.011	5.505** (.000)	.574	1.742
도구적 동기(예방)	.390	.152	.151	.002	2.251* (.002)	.360	2.779

Note. ** p=.000, * p<.05

<표 5>에서 한국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성취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이상적 제2언어 자아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기 구인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초·중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더욱 낮아지는 이 현상을 고려할 때, 위의 <표 5>의 결과는 이 동기 요인을 향상 및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는 학습동기 증진 언어하기 활동을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4.2 현장연구 결과

4.2.1 사전과 사후 설문 비교 결과

전술하였듯, Swain(2006a, 2006b, 2010)의 언어하기 개념을 확장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초·중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실제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언어하기 교실활동을 사용하였다. 이 장에서는 현장연구 결과를 선찰하기 위해 먼저 2회에 걸친 정량적 설문 결과를 제시한다. 설문 조사는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사전과 사후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전술하였듯이, 서울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한 곳과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교 두 곳에서 언어하기 활동이 한 학기 동안 진행되었다. 언어하기 활동에 있어서 실험반 3개와 통제반 1개가 설정되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별로 각 활동반들이 동기 구인들에서 어떠한 변화를 나타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회의 설문 조사, 즉 사전과 사후 설문 조사의 결과 수집 후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표 6>에 나타나듯이, 초등학교에서는 통제반에서는 어떠한 동기 구인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언어하기와 관련된 활동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가 향상되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실험반들의 경우, 영어 학습 일기반에서는 유의미한 영어 학습 동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영어 모범 사례 읽고 자기 의견 적기반에서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통합적 동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 모범 사례를 읽고 자기 의견을 적는 활동을 한 반에서 더욱 강한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 학습과 관련하여 미래의 긍정적인 모습을 꿈꾸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드러낸다. 또한 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더 긍정적인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그리고 더 높은 통합적 동기를 나타냈다. 그러나 영어 모범 사례 보고 같은 조 급우들과 상호 토론하기 반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모범 사례를 읽고 의견을 적는 활동이 영어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활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초등학교의 사전과 사후 설문조사 비교

		통제반 (n=110)		영어 학습 일기 (n=103)		자기 의견 적기 (n=103)		학생 소집단 상호 토론하기 (n=104)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이상적	평균	3.71	3.78	3.09	3.36	3.46	3.96	3.63	3.72
	t값	-0.279		-1.369		-2.727*		-0.359	
제2언어 자아	평균	2.91	3.22	2.89	2.90	3.11	3.35	3.09	3.35
	t값	-1.113		-0.083		-1.238		-1.358	
필연적	평균	3.65	3.65	3.31	3.27	3.76	3.82	3.70	3.79
	t값	-0.043		.253		-0.413		-0.579	
제2언어 자아	평균	3.11	3.35	3.06	2.97	3.37	3.43	3.13	3.30
	t값	-0.831		.451		-0.445		-0.738	
도구적	평균	3.04	3.41	2.86	2.97	3.06	3.26	3.31	3.31
	t값	-1.293		-0.740		-1.274		.000	
동기(잠려)	평균	3.44	3.50	3.28	3.02	3.54	3.65	3.67	3.75
	t값	-0.189		1.213		-0.597		-0.472	
동기(예방)	평균	3.52	3.62	3.23	3.40	3.64	4.39	4.05	3.86
	t값	-0.424		-0.603		-3.642**		.626	
가족 영향	평균	3.66	3.50	3.24	3.26	3.53	4.13	3.85	3.64
	t값	.550		-0.118		-2.320*		.703	
동기화된 행동	평균	3.49	3.50	3.11	3.11	3.71	4.15	3.81	3.83
	t값	-0.081		.000		-1.673		-0.065	
영어사용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평균	3.23	3.41	3.00	2.95	3.38	3.68	3.57	3.62
	t값	-0.701		.216		-1.382		-0.165	
문화적 관심	평균	3.23	3.41	3.00	2.95	3.38	3.68	3.57	3.62
	t값	-0.701		.216		-1.382		-0.165	

Note. ** p=.000, * p<.05

다음 페이지의 <표 7>은 중학교에서 언어하기 활동을 시행한 결과인데, 초등학교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7>에 나타났듯이, 사전과 사후의 유의미한 차이는 자기 의견 적기 활동에서는 문화적 관심 한 항목에서만 나타난 반면, 영어 학습 일기반에서는 필연적 제2언어 자아와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7> 중학교 언어하기 활동 사전과 사후 설문조사 비교

		통제반 (n=112)		영어 학습 일기 (n=102)		자기 의견 적기 (n=101)		학생 소집단 상호 토론하기 (n=102)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이상적	평균	3.55	3.47	3.43	3.33	3.36	3.38	3.45	3.45
	t값	.919		1.361		-.145		.012	
제2언어 자아 필연적	평균	2.75	2.81	2.58	2.84	2.86	2.83	3.00	2.96
	t값	-.682		-2.408*		.273		.447	
도구적 동기(장려)	평균	3.69	3.62	3.60	3.48	3.66	3.52	3.74	3.63
	t값	.776		1.313		1.521		1.315	
도구적 동기(예방)	평균	3.19	3.18	3.15	3.20	3.44	3.24	3.45	3.38
	t값	.039		-.552		1.889		.703	
가족 영향	평균	2.85	3.02	2.83	2.85	3.08	2.97	3.07	3.05
	t값	-1.65		-.325		1.238		.199	
동기화된 행동	평균	3.07	3.01	3.25	3.06	3.06	2.93	3.16	3.15
	t값	.541		1.987		1.046		.167	
영어학습에 대한 태도	평균	3.15	3.21	3.21	2.99	2.82	2.83	2.84	2.84
	t값	-.499		2.495*		-.052		-.062	
통합적 동기	평균	3.33	3.27	3.31	3.27	3.06	3.23	3.13	3.16
	t값	.556		.507		-1.312		-.265	
영어사용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평균	3.50	3.41	3.24	3.24	3.01	3.21	3.19	3.15
	t값	.721		.000		-1.617		.338	
문화적 관심	평균	3.25	3.17	2.95	2.95	2.77	3.05	2.99	3.13
	t값	.605		.088		-2.517*		-1.210	

Note. ** p=.000, * p<.05

위의 <표 6>과 <표 7>에 제시된 결과는 본 연구가 비교적 단기간인 한 학기 동안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특정한 언어하기 활동이 영어 학습 동기 관련 구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고 일반화 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표 6>과 <표 7>에서 제시된 초등학교생들과 중학생들의 언어하기 활동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언어하기 활동의 유형 중 영어 모범 사례 동영상 시청 후 자기 의견을 적는 활동을 한 경우에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초등학교생들에게 유용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사전에

는 3.47의 평균값을 나타냈으나, 사후에 3.9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및 통합적 동기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중학생 학습자들에게도 문화적 관심 항목에 있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효과적인 언어하기 활동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초등학생들에게는 영어 모범 사례 동영상 시청 후 자기 의견 적기 활동반이 이상적 제2언어 자아, 영어 학습 태도, 통합적 동기 세 요소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으나, 중학생의 경우 자기 의견 적기 반은 영어권에 대한 문화적 관심만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냈다. 중학생 집단에게는 영어 학습 일기 반이 필연적 제2언어 자아에 유의미한 증가를 보인 반면,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는 사전에 평균값이 3.22에서 사후에는 오히려 2.99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V.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및 탈동기화의 양상이 어떠한가를 먼저 조사한 후, 이들에게 Vygotsky 사회문화이론에 입각한 언어하기 활동을 2012년 1학기 동안 적용하여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7-11월에 2,625명의 한국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통해 얻은 설문 결과는 초등학생에게 높게 나타나던 학습 동기의 하위 구인들이 중학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어 탈동기화는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이를 통해 영어 학습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학생들은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2012년 1학기에 시행된 영어 학습 동기 증진 언어하기 활동은 2주에 1회 수업 전후에 시행되었다. 초등학생들은 실험반 3개 반 자기의견 적기반 학생들의 이상적 제2언어 자아,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통합성은 언어하기 활동 시행 전에 비해 시행 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으며,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의견 적기반 학생들은 문화적 태도에서 유의미한 증가, 학습 일기반 학생들은 필연적 제2언어 자아는 유의미한 증가,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에서는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냈다. 이

러한 차이는 초등학생들에 비해 중학생들은 자의식이 강해지고, 영어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학술 및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의 언어하기 활동은 본래 인지적 도전이 필요한 과업을 음성 혹은 문자 언어로 수행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제2언어 학습 혹은 인지 능력에의 향상이 가능하다는 Swain(2006a, 2006b, 2010)의 이론을 정서적 측면에 확장 응용한 것이다. 즉, 언어하기 활동이 참여자의 인지적 변화뿐 아니라 학습 동기라는 정서적 변화를 실제로 추동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둘째, 학습 동기 증진 언어하기 활동은 학생들의 탈동기화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영어를 배워서 장차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를 반추할 수 있는 초인지적(metacognitive) 능력이 신장되어 이들의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유의미하게 신장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즉, 사춘기 이전의 학생들에게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시키고 영어 공부를 하는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는 초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에 이들의 학습 동기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언어하기 활동을 융통성 있게 교실 활동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 학기간 수행된 연구이므로 다양한 교육 환경의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장기간에 걸친 효과를 사후 검증(post-hoc test)을 통해 살피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언어하기 활동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중 어떤 경우에 효과적인지 등을 후속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입시 부담이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언어하기 활동이 효과가 있는지 역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 용 문 헌

- 김성식. 「초등학생의 사전 영어학습이 학교 영어공부의 태도 및 동기에 미치는 영향」. 『외국어교육』 6 (1999): 249-270.
- 이다은 · 김태영.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현동 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조

- 사: 정의적 요인을 중심으로. 『현대영미어문학』 31.2 (2013): 29-55.
- 이효용. 「한국 중, 고등학생의 태도와 학습동기가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 51.2 (1996): 3-34.
- 최덕인 · 김태영. 「한국 중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요인: 상위권 학습자와 하위권 학습자 비교연구」. 『영어영문학연구』 39.2 (2013): 245-74.
- Brown, Douglas H.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White Plain, NY: Pearson Longman, 2007.
- Cheng, Hsing-Fu, and Zoltán Dörnyei. “The Use of Motivational Strategies in Language Instruction: The Case of EFL Teaching in Taiwan.” *Innovation i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1.1 (2007): 153-74.
- Dörnyei, Zoltán. *Motivational Strategies in the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P, 2001.
- _____. *The Psychology of the Language Learner: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2005.
- _____.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Ed. Zoltán Dörnyei and Ema Ushioda. Bristol, UK: Multilingual Matters, 2009. 9-42.
- _____. “Researching Complex Dynamic Systems: Focus on L2 Motivation.” The 2010 American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AAAL), Atlanta, Georgia, USA. 8 Mar. 2010. Presentation.
- Dörnyei, Zoltán, Kata Csizér, and Nóra Németh. *Motivation, Language Attitudes and Globalisation*.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2006.
- Dörnyei, Zoltán and Ema Ushioda, ed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Bristol, UK: Multilingual Matters, 2009.
- Dörnyei, Zoltán and Ema Ushioda. *Teaching and Researching Motivation*. 2nd ed. Harlow, UK: Longman, 2011.
- Ericsson, Anders K. “Towards a Procedure for Eliciting Verbal Expression of Non-Verbal Experience without Reactivity: Interpreting the Verbal Overshadowing Effect within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Protocol Analysi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6 (2002): 981-87.
- Ericsson, Anders K., and Herbert A Simon. “How to Study Thinking in Everyday Life: Contrasting Think-Aloud Protocols with Descriptions and Explanations of Thinking.” *Mind, Culture, and Activity* 5.3 (1998): 178-86.
- Gardner, Robert C.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Attitude and Motivation*. London: Edward Arnold, 1985.
- _____. “The Socio-Educational Model of Second Language Learning: Assumptions, Findings, and Issues.” *Language Learning* 38.1 (1988): 100-25.

- _____. "Integrative Motiva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otiva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Ed. Zoltán Dörnyei and Richard Schmidt. Honolulu, HI: U of Hawaii P, 2001. 1-20.
- _____. "The Socio-educational Model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 Research Paradigm." *EUROSLA Yearbook* 6 (2006): 237-72.
- Gardner, Robert C., and Wallace E Lambert. "Motivational Variabl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13 (1959): 266-72.
- Guilloteaux, Marie J., and Zoltán Dörnyei. "Motivating Language Learners: A Classroom-oriented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Motivational Strategies on Student Motivation." *TESOL Quarterly* 42.1 (2008): 55-77.
- Ivankova, Nataliya V., and John W. Creswell. "Mixed Methods." *Qualitative Research in Applied Linguistics*. Ed. Juanita Heigham and Robert A. Croker.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9. 135-61.
- Kang, Dong-Ho. "Motivation is Such a Complex Process." *English Teaching* 55.3 (2000): 3-39.
- _____. "Process-Oriented L2 Motivation in Content-Based Instruction (CBI)." *English Language Teaching* 22.1 (2010): 45-66.
- Kikuchi, Keita. "Demotivators in the Japanese Contexts."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in Japan*. Ed. Matthew T. Apple, Dexter Da Silva and Terry Fellner. Bristol, UK: Multilingual Matters, 2013. 206-24.
- Kim, Tae-Young. "The Sociocultural Interface between Ideal Self and Ought-to Self: A Case Study of Two Korean Student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Ed. Zoltán Dörnyei and Ema Ushioda. Bristol, UK: Multilingual Matters, 2009. 274-94.
- _____. "Socio-Political Influences on EFL Motivation and Attitudes: Comparative Survey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1 (2010): 211-22.
- _____.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glish Learning Demotivation: A Comparative Survey Study."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2 (2011): 1-11.
- _____.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of Korean EFL Students: Cross-Grade Survey Analysis." *English Teaching* 67.1 (2012): 29-56.
- Kim, Tae-Young, and Hyo-Sun Seo.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eign Language Learning Demotivation: A Mixed Methods Study of Korean EFL Context." *The Asia-Pacific Education Researcher* 21.1 (2012): 160-71.
- Kim, Yoon-Kyoung, and Tae-Young Kim. "Gender Differences in Korean Secondary School Students' Learning Styles and L2 Motivation."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8.2 (2011): 51-71.

- _____. "Korean Secondary School Students' L2 Learning Motivation: Comparing L2 Motivational Self System with Socio-educational Model."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8.1 (2012): 115-32.
- _____. "English Learning Demotivation Studies in the EFL Contexts: State of the Art." *Modern English Education* 14.1 (2013): 77-102.
- Lamb, Martin. "The Impact of School on EFL Learning Motivation: An Indonesian Case Study." *TESOL Quarterly* 41.4 (2007): 757-80.
- Morwitz, Vicki G., Eric Johnson, and David Schmittlein. "Does Measuring Intent Change Behavior?"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1 (1993): 46-61.
- Swain, Merrill. "Communicative Competence: Some Roles of Comprehensible Input and Comprehensible Output in Its Development."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Ed. Susan Gass and Carolyn Madden. Rowley, MA: Newbury House, 1985. 235-53.
- _____. "Three Functions of Output in Second Language Learning." *Principle and Practice in Applied Linguistics: Studies in Honour of H. G. Widdowson*. Ed. Guy Cook and Barbara Seidlhofer. Oxford, UK: Oxford UP, 1995. 125-44.
- _____. "The Output Hypothesis and Beyond: Mediating Acquisition through Collaborative Dialogue." *Sociocultural Theor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Ed. James P. Lantolf. Oxford, UK: Oxford UP, 2000. 97-114.
- _____. "The Output Hypothesis: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of Research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Ed. Eli Hinkel. Mahwah, NJ: Lawrence Erlbaum, 2005. 471-83.
- _____. "Languaging, Agency and Collaboration in Advanced Language Proficiency." *Advanced Language Learning: The Contribution of Halliday and Vygotsky*. Ed. Heidi Byrnes. London: Continuum, 2006a. 95-108.
- _____. "Verbal Protocols: What Does It Mean for Research to Use Speaking as a Data Collection Tool?" *Inference and Generalizability in Applied Linguistics: Multiple Perspectives*. Ed. Micheline Chalhoub-Deville, Carol A. Chapelle and Patricia A. Duff. Amsterdam, The Netherlands: John Benjamins, 2006b. 97-114.
- _____. "Talking-It-Through: Languaging as a Source of Learning." *Sociocognitive Perspectives on Language Use and Language Learning*. Ed. Rob Batstone. Oxford, UK: Oxford UP, 2010. 112-29.
- Swain, Merrill, Sharon Lapkin, Ibtissem Knouzi, Wataru Suzuki, and Lindsay Brooks. "Languaging: University Students Learn the Grammatical Concept of Voice in French." *The Modern Language Journal* 93.1 (2009): 5-29.
- Taguchi, Tatsuya, Michael Magid, and Mostafa Papi. "The L2 Motivational Self

- System among Japanese, Chinese and Iranian Learners of English: A Comparative study.”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Ed. Zoltán Dörnyei and Ema Ushioda. Bristol, UK: Multilingual Matters, 2009. 66-97.
- Vygotsky, Lev S.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 Harvard UP, 1978.
- _____. “Thinking and Speech.” *The Collected Works of L. S. Vygotsky, Vol. 1: Problems and General Psychology*. 1934. Ed. Robert W. Rieber and Aaron S. Carton. Trans. Norris N. Minick. New York: Plenum, 1987. 39-285.

김태영

주소: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이메일: tykim@cau.ac.kr

논문접수일: 2015. 3. 31. / 심사완료일: 2015. 4. 30. / 게재확정일: 2015. 5. 8.